

무더위 날릴 시원하고 유쾌한 예술난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 '하·하·하(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상주단체들의 단독공연과 더불어 1개 무용단과 3개 오케스트라가 합을 맞춘 합동공연 '동화&전설', 국내 1호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의 연출작 '썬앤문',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의 대표 극단 한울림의 '호야 내새끼'가 예정돼 있어 보다 알찬 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페스티벌의 시작은 대구 학생문화센터 상주단체인 극단 한울림이 연다. 스테디셀러 공연인 '호야 내새끼'는 2010년 첫 창작 공연 이후 9차 앙코르 공연까지 누적 관객 4만5,000명을 기록한 한울림의 대표 공연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26살 청년 호야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장애인과 가족의 현실을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참여적이고 대중적인 극단의 작품 특성을 잘 드러낸다. 공연은 17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에는 여름밤 야외무대에 어울리는 셰익스피어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한여름 밤의 꿈'을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선보인다.

술 숙 요정들과 젊은 두 쌍의 남녀가 펼쳐내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 정서에 맞게 번안하고 각색해 신나는 음악과 춤, 희극연기로 재탄생시켰다.

국내 1호 뮤지컬 음악감독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박칼린 연출의 난버벌 국악 퍼포먼스 '썬앤문'이 특별 초청공연으로 찾아온다.

이 작품은 전통 국악에 일렉트로닉, 록,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홀로그



그린발레단.



극단 푸른연극마을 '한여름 밤의 꿈'

17~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하·하·하 페스티벌 6개 단체 공연·박칼린 연출 '썬앤문'·대구 극단 무대

램 영상소를 결합한 디지털 융복합 공연이다. 서양음악 불레로와 샬플이춤, 서정적인 국악가요, 경쾌한 민요 메들리, 즉석에서 갖가지 재료로 소리를 만드는 폴리 체험 등이 18일 오후 4시 30

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극단 사람사이에는 낯선 곳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된 세 남자의 이야기 연극 '우주인'을 선보인다. 대리운전

기사 소남은 길을 잃고 헤매다 생수회사 영업사원 불남이를 만난다. 그리고 그때, 떡볶이 노점상 허남이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일들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소심하고, 불안하고, 허약한 세 명의 남자가 만나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18일 오후 8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 무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그린발레단·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사)문화예술진흥회(광주신포니에타)·(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아시아아트신포니오케스트라)가 뭉쳤다. 맨텔스존 '한여름밤의 꿈 중 서곡', 차이코 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네 마리 백조의 춤', 드보르작 '후야의 마녀', 슈트라우스 '트리치 트리치 폴카',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이집트의 영광' 등의 명곡에 발레가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휘 박승우, 발레는 김정희, 벨리테 노르보예프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19일 오후 4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프리 콘서트와 아트프리마켓도 만나볼 수 있다. 본공연 20분 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 등에서는 실내악 목관 4중주, 시원한 댄스스포츠, 다양한 레퍼토리의 금관 5중주, 여름의 서정을 담은 현악 4중주 등 소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야외특별무대에서는 유명 뮤지컬의 주요 넘버만 고른 뮤지컬 갈라쇼, 광주 대표 DJ퍼포먼스 팀 빅사이즈크루, 국악과 EDM이 어우러지는 사자춤 등의 프리 콘서트가 이어지며, 문화체험 등 아트프리마켓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료 음료·간식 나눔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912. /이보람 기자



지난 1월 단편영화 '파동' 제작 중인 청소년영상제작단 동그라미.

동그라미 청소년 영상제 'D-DAY'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주제 11일 광주 유스퀘어 야외무대

청소년을 위한 반항적 영상제 'D-DAY'가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를 주제로 청소년을 억압하고 간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영상 작품으로 제작해 소통하는 청소년 교류 행사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이하광주센터)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하는 청소년 영상동아리 '동그라미'가 개최하는 것

으로 청소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센터에 모여 꾸준히 영상제작을 진행해 왔다. 신입 단원 면접부터 동아리 운영, 단원별 역할 분담과 협업 통해 실제 영상제작 현장과 동일한 과정의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모든 것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생활기록부 조작성을 주도한 교사와 여이게 된 한 학생이 부조리를 타파하는 과정을 그린 단편영화 '철파키', 여학생들의 불편한 교복 문제를 꼬집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 뉴스 'EBS 스텔리포터, 여학생 교복 문제', 강령술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손님대접'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보람 기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주 국제관악제 참가

내일 제주 탐동해변공연장 오프닝 무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이 10일 제주도 탐동해변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8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제주 국제 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세계 26개국 80여 팀, 4,000여 명의 연주자가 참가하는 대형음악축제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참가는 올해로 네 번째다. 이날 국제 관악제에서는 광주시립소

녀합창단이 오프닝 무대에 오른다.

일본 작곡가 Akira Senju의 대표곡 'Eternal light', 80년대 듀엣 가람과 묘의 듀엣곡 '생일', 제27회 MBC 창작 동요제 대상곡인 '아빠 사랑해요', 가족의 사랑곡 '우리집'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31일에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해 23개 팀과 함께 공연한다. /이연수 기자



광주시립오페라단 연습실 문 열어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내일 개소식

지난해 9월 창단한 이후 독립적인 연습실을 갖지 못했던 시립오페라단이 연습실과 사무실을 갖게 됐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10일 오후 1시 2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에 위치

한 시립오페라단 사무실 및 연습실 개소식을 갖는다.

연습실은 광주문화회관 별관 1층 구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해 250㎡ 규모로 자료실과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을 갖

춰 마련됐다.

시립오페라단 정갑근 예술감독은 "사무실과 연습실을 마련해 시립오페라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실제 공연장과 유사한 연습환경이 준비되어 있기에 앞으로 추진할 공연 창작 활동의 극대화를 통해 좋은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시립오페라단은 창단이후 '오페라 갈라'를 시작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오

페라의 화려함과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하며 오페라의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휴머팅크의 '헨젤과 그레텔', 4월에는 베르디의 '아이다'를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한편 시립오페라단의 차기 공연인 '광주 솔리스트앙상블'은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려질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 북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운암 525-3761 010-6886-3761
총창 233-4123 010-7755-8824	양산 574-3745 010-2646-3205
학운 225-0651 010-3640-2454	오치 261-9461 010-3629-0146
■ 서구	문흥 261-9462 010-7601-4480
광천 374-2126 010-9602-2565	일곡 573-3200 010-9273-0105
쌍촌 372-6659 010-6636-2775	두암 264-7074 010-2684-6091
화정 381-2156 010-4235-0902	중흥 433-1503 010-4601-2080
상무 372-7625 010-5013-3889	북부 222-2524 010-2656-4543
풍암 681-3179 010-6634-5084	■ 광산구
■ 남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봉선 653-1920 010-9474-02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월산 010-8245-1625	우산 951-9954 010-5018-0024
남부 651-1833 010-2943-8016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하 010-8620-1925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4633-179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